

## 은유의 인지

양 하 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어휘의 풍부화에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언어표현의 주요한 문체론적수법의 하나인 은유의 인지와 관련된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은유는 비유과정이 은폐되고 비유의 결과만을 언어로 표현하는 비유이다.

은유의 인지라는것은 비유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단어파생의 주요공간인 은유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체험, 생활공간과 결부하여 옳은 리해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을 파악하는것을 말한다.

은유의 인지는 은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여오다가 그후에 인지과학이 발전하면서 은유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에 대한 문제로서 20세기 6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은유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일찌기 고대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재치있게 활용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올수는 없는것이다. 그것은 오직 재능의 뚜렷한 표시일뿐이다.》(The greatest thing by far is to be a master of metaphor, it is the one thing that cannot be learned from others. It is hallmark of genius. Aristotle. Poetics 1999. [詩學] 北京, 商務印書館)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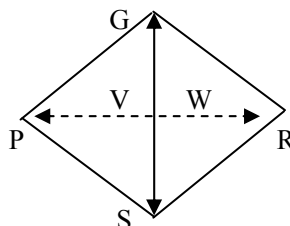
리차드는 은유가 그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다는 무소부재(無所不在)의 원칙을 제기하였고 브레알은 은유의 주제는 무한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에메르손은 정리된 자연계는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은유의 세계라고 하였다.

블랙크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은유를 인지의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은유를 인지의 각도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레이코프와 존슨이다.

특히 그레디와 기타 여러 학자들이 20세기말에 처음으로 제기하고 그로트와 크루스가 공동으로 발전시킨 은유인지의 도식에는 대화자들과 단어의 일반의미 및 환경의미를 동시에 한 장면속에 앉히고 말과 글로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들이 제기한 은유인지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P : 생산자, R : 접수자, G : 일반의미, S : 환경의미, V : 말, W : 글)

이 도식의 우점은 교제쌍방과 단어의미로 표시되는 생활의 장면과 말 및 글이 통일되어 무대우에 등장함으로써 인지의 직관성이 훨씬 높아진다는데 있다. 여기에서 은유에 대한 인지는 생활이 흐르는것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아주 생동하며 현실의 움직임이 그대로 안겨오는것으로 하여 활동적인 측면에 대한 느낌이 잘 안겨온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 도식의 본질적인 약점은 인지에 작용하는 사람의 경험과 문화 및 심리, 언어의 민족적특성 등이 완전히 배제되고 언어는 다만 세계 공통적인 성격으로만 등장하였다는데 있다.

인지의 측면에서 본 은유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우선 련관성이다. 이것은 언어교제와 본문리해의 과정이 살아움직이는 인지활동이라고 보는데 귀착된다.

또한 인지문맥이다. 이것은 어떤 본문을 리해할수 있게 하는 배경지식을 가리킨다.

례를 들어 다음의 영어문장을 보자.

He is a mule.

(mule의 의미: - 노새

- 옹고집쟁이)

여기서 환경에 따라 이 명사가 《노새》가 될수도 있고 《옹고집쟁이》가 될수도 있다. 즉 이 단어의미의 실현은 전적으로 구체적인 배경지식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또한 교제쌍방이다. 위의 도식에서 나오는 생산자는 말하는 사람 또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보를 내놓는 사람이고 접수자는 말을 듣거나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넘두에 둔것이다.

이밖에 정보적측면에서 본 은유에 대한 리해에는 문맥의 효과나 련관성의 정도 등을 들고있다.

인지의 측면에서 진행된 은유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인것은 사람의 경험, 대화자들, 언어환경 및 비유되는것과 비유하는것을 통일시켜 고려하는것이다.

은유와 대화자의 지식과 추론능력 등은 유기적으로 련관된다.

여기서 대표적인것은 다음의 분석실패에서 볼수 있다.

\* 1999년에 그레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였고 그후 2004년에 그롭트와 크루스가 공동으로 이 분석표를 완성하였다.

He	is	a hero.
개념구역 1	이다	개념구역 2
취지		매개물
주제		운반수단
목표		원천
주되는것		따르는것

여기서 《he》와 《hero》는 서로 다른 개념의 구역으로 된다. 《he》가 무엇을 말할것인가 하는 의도가 된다면 《hero》는 그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된다. 《he》가 주제로 되면 《hero》는 그것을 실현하는 운반수단으로 된다. 그리고 《he》가 해석의 목표가 되는 경우에는 《hero》는 그 본질을 밝힐수 있는 의미해석의 원천으로 된다.

또한 《he》가 가장 주되는것이라고 한다면 《hero》는 그것에 뒤따르는 부차적인것으로 된다.

은유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은유와 인지의 결합속에서 그것의 형식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할수 있다는데 그 우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형식구조에 치우치던 나머지 인지하는 사람의 은유표현의 진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게 대하는 약점이 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어떤 일정한 대상에 대한 인지가 문화에 대한 리해에 이르러서야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것이다.

례를 들어 개(짐승)에 대한 인지를 놓고보면 그것이 조선어나 영어에서 다같이 네발가진 짐승으로서 포유류이고 척추동물이라는 동물학적인 형태분류라든가 개에 대한 표상은 비슷한것이다.

그러나 민족문화의 고유성과 심리는 서로 다른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어에서 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덜렁수개》, 《개천대》, 《개자식》과 같이 천시되는 대상으로 되어있을뿐아니라 《놈들의 개》, 《주구》와 같이 변절자나 배신자, 간첩놈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friendly dog》, 《like a dog》와 같이 개를 친우나 벗처럼 여기거나 가정의 한식술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민족적감정은 오랜 세월과 더불어 그 민족에게 형성되고 굳어진 문화와 사회적배경속에서 확고하게 인지되고 고착된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와 관련한 개념과 그것을 반영한 단어의미는 소쉬르의 언어분류에 나오는 통합(syntagma)과 계열(paradigma)의 각도로 볼 때 계열적의미로서 같은것으로 되지만 개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체험과 민족의 문화적성격에 귀착되므로 서로 대립되는 내용으로 또는 판이한것으로 나타난다. 다시말하여 주어진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단어의 의미는 객관적인것이고 세계공통적인것이지만 인지는 객관적인 대상을 각이한 처지와 문화의 배경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것이므로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날수 있다. 즉 인지는 전인류에게 덮어놓고 같은 결과를 안겨주는것은 아닌것이다.

승냥이를 가리키는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는 야생척추동물로서 길들이기 힘들고 네발가진 포유동물이라는 개념을 반영하고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단어 《승냥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인지는 민족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승냥이에 대한 인지는 평화로운 인민을 짓밟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침략세력에 대한 대명사로 여긴다. 침략세력의 야수성이 승냥이가 발로시키는 야수성과 악착성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승냥이를 깨끗하고 생활력이 강한 짐승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인민은 쥐를 부지런한 농민이 지은 곡식을 슬금슬금 날라가는 도적놈으로, 몹쓸놈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고양이와 쥐와의 관계에서 쥐를 고양이한테 꼼짝 못하는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조선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용구가 생기었다.

고양이:

고양이 죽은데 쥐눈물

소리없는 고양이 쥐 잡듯

고양이 쥐생각

(여기서 주제는 고양이이다. 즉 고양이는 쥐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한다.)

쥐:

생쥐 고양이한테 덤빈다

쥐가 고양이 무는 식

(여기서 주제는 쥐이다. 즉 고양이한테 꼼짝 못하는 쥐가 고양이한테 대드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에서는 고양이가 쥐의 께에 속아넘어가는 미련한 존재로 인정되는 반면에 쥐는 아주 께바르고 령리한 존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와 쥐에 대한 개념적의미에서는 세계적으로 같다고 볼수 있으나 문화의 차이로 하여 이 짐승들에 대한 인지는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

물론 동물에 대한 인지에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례를 들어 범, 사자는 사나움과 용맹성의 상징이고 곰은 대체로 우둔하고 미욱하며 여우는 교활하다는데 대해서는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수 있다.

인지의 관점에서 볼 때 꽃과 관련된 은유에 있어서도 민족어들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다. 물론 단어 《꽃》에 대한 언어적의미와 은유에는 인지의 각도에서 볼 때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꽃이 아름다움과 화창하게 피어나고 한창 번성하는 개화기를 상징하는데서는 일정한 리해상공통점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꽃에 들어가는는 민족적감정정서와 문화심리적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이것은 주로 해당한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수 있는 꽃들의 품종과 인민들의 생활력사 및 민족들의 문화에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실례로 영화문학 《도라지꽃》에서 나오는 대사를 들수 있다.

송림: 그래서 도라지는 깊은 산속에만 핀대요. 진달래는 《날 좀 봐주세요. 내가 곱지요.》하고 산기슭에 핀다면 도라지꽃은 《제발 절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못 견디겠어요.》하고 남 안보는 곳에 혼자 핀다나.

원봉: 그래서 더 곱지!

여기에는 의인화의 수법이 들어있지만 도라지꽃이 부끄럼을 타고 수집어한다는것과 진달래가 제자랑을 하고싶어서 산기슭에 나가 핀다는것은 은유의 표현방식으로 된다.

여기에는 꽃의 생김새와 그것이 주로 피어나는 장소 등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민족적 감정정서가 깃들어있다.

단어 《도라지꽃》과 《진달래》에는 세계의 공통적인 개념인식에서 오는 단어의미가 깃들어있으면서도 그 단어들의 의미인지에 있어서는 문화와 심리적인 고유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인지적고유성이 담겨져있다.

바로 그것이 문화의 민족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 은유로 된다는데 그 은유인지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것이다.

유럽에서는 튜립꽃을 고상하고 신사적이며 멋있는 꽃으로 보는데 도라지꽃과 진달래

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우리 인민이 느끼는 그러한 감흥의 높이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 물론 인류문화에는 선한것을 장려하고 악한것을 징계하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하여 근면하고 창조적이며 평화와 사랑 및 행복을 지향하여나가는 진보적인 인류에게 희망과 문명을 밝혀주게 된다.

선진적인 문화적재부는 비록 시대가 다르고 대륙과 지역이 다르더라도 자주적존엄을 지켜나가는 인민들에게 진보적인 문화를 창조하여 안겨주는것으로써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실례로 우화작가 라퐁텐은 매미를 그늘에서 노래나 부르면서 놀고먹는 건달로, 개미를 여름내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으로 인지하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우화 《매미와 개미》를 창작하였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이 작가의 인지를 곤충학의 각도에서 볼 때에는 과학적인것이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후세에 곤충학자 파브르는 매미가 일생동안에 밀쌀 한알도 다 먹을수 없는 촉수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라퐁텐의 곤충학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문제는 은유의 인지를 순수 구조적으로 보면서 그 형식적측면에 치중할 때 인류사회와 인간생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결론에 떨어지게 될수 있다는것이다.

은유는 비유의 출발점과 비유과정이 없이 그 결과만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비유이고 은유에 대한 인지는 품종과 소속이 전혀 다른 두가지의 사물현상에 어떤 공통성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의 추리능력이 언어로 표현된것이다.

처녀	꽃
1. 사회적존재	1. 식물
2. 젊음이	2. 씨를 남기다
3. 아름답다	3. 줄기, 가지, 잎이 있다
4. 한창 피어나다	4. 아름답다
5. 마음이 곱다	5. 한창 피어나다

표에서 처녀와 꽃이라는 두 대상에서 차이나는것들은 모두 버리고 공통점(《처녀》의 3, 4와 《꽃》의 4, 5)을 찾아서 은유로 표현한것이 《처녀는 꽃이다.》로 된다.

은유에 의한 표현과 단어조성 그리고 사물현상의 공통점에 대한 인지에는 거의나 제한이 없다. 가령 《버바다》라고 하면 이 은유에는 다 익은 황금의 버가 바다와 같이 설레이며 바다의 물과 같이 많다는 뜻이 있고 《기계바다》라고 하면 바다와 같은 설레임과 짹짹한 맛은 없어도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기계가 바다와 같이 많다는 뜻으로 리해된것이다. 이 밖에 《사람바다》, 《강낭이바다》등도 우의 레들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수 있다.

은유에 대한 인지에서 볼 때 《당은 어머니》라는 표현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진실하게 반영한것이다.

한없는 사랑의 실제적인 전형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돌보고 아끼는데서 애로와 조건의 구속을 모른다. 자식에 대한 사랑의 꾸준함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더한 존재는 없다. 사람들이 한생토록 그리며 꿈에서도 못잊어 찾아보는 어머니야말로 사랑과 너그러움의 화신인것이다. 이런 어머니를 우리 인민은 스스로없이 조선로동당이라고 부르며 자기들의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맡기고 산다.

《당은 어머니》라는 은유에서 의미갈래를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당	ㄴ. 어머니
1.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집단	1. 자식을 낳아 키우다
2. 참모부	2.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
3. 향도력	3. 자녀에 대한 꾸준한 사랑
4. 인민에 대한 최대의 배려	4. 녀자
5. 동지에 대한 영원한 믿음	5. 어른
6. 인간존엄의 발양	6. 자녀에 대한 무한한 배려
7.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7. 개성적인 사람

은유에서 비유되는 대상과 비유하는 대상사이에 성립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같은 의미내용이다. 표에서 ㄱ의 4, 5, 7과 ㄴ의 3, 6은 은유적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것이다.

단어 《당》의 의미는 일반화되어있다. 은유의 힘은 은유하는 대상이 지니고있는 가장 구체적이며 생동한 특징을 은유되는 대상에게 안겨준다는데 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은유하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체험을 통하여 다 잘 알고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써 은유되는 대상의 본질을 뜻풀이한다는데 그 참다운 위력이 있는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단어 《당》의 의미는 극히 일반적인 성격의 개념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가리키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당은 어머니》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게 되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지켜주고 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확고히 담보해준다는것을 체험으로 깨닫고있기때문이다.

은유에 대한 인지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념원과 지향이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확고하고 생동한 단어의 의미와 굳게 결합되는데 있는것이다.

실마리어 은유인지, 문화심리